

“평화도시 광주가 남북협력 주도해야”

문상필 시의원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1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의 성평등 지수 최하위에 대한 원인, 들쭉날쭉한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 등이 지적됐다.

또한,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에 운전면허 시험장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광주가 남북협력 주도해야”=문상필(북구 3)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광주는 민족 공동체, 남북경제 공동체를 가장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인데도 ‘평화도시’로서 역할이 부족했다”며 운전면허 시험장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윤 시장의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제안·주도 ▲한전의 참여로 북한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추진 ▲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에 북한 예술단 초청, 전당내 북한 문화 전시 시설화 등을 촉구했다. 문화 교류 등 협력을 위한 윤 시장의 남북을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통일 교육 체계화, 가정 대북경협 지원센터·평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남

“성평등 지수 최하위... 불안도시 만들건가” 유정심 시의원

“백화점 교통유발 부담금 기준 들쭉날쭉” 김영남 시의원



문상필 시의원 유정심 시의원 김영남 시의원

북교류 협력기금 조성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북은 사전에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남북 에너지 협력사업과 문화전당 연계 문화교류는 전문가 TF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지수 최하위=유정심(남구 2) 시의원은 “광주의 성평등 지수는 2009년 상위(Level-1)에서 2010년 중상위(Level-2), 2011년과 2012년은 중하위(Level-3)로 떨어진 뒤 2013년에는 하위

(Level-4)지역으로 곤두박질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평등 지수 최하위권 추락은 사회안전도 인식 부재, 흉악범죄에 의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등 안전분야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이라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모두 감소 추세지만 남성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아 안전분야 평가가 낮아진 것”이라며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것만으로 불안한 도시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평등 지수는 여성가족부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 개선할 목적으로 경제, 보건, 복지, 안전 등 8개 분야 21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들쭉날쭉’=김영남(서구 3) 시의원은 “백화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유발계수 적용이 자치구·시설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명확한 전수 실태조사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미부과된 액수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려고 바닥 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물리는 돈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66억6000여 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 적용도가 판매시설인데도 로비, 기전실 등 일부 부속시설에는 매우 낮은 유발계수를 적용해 부과액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의 유발계수를 별도로 적용했다가 지난해는 주용도(판매시설) 유발계수를 일괄 적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전에는 유발계수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부대시설에도 일괄적인 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최현철기자 cki@kwangju.co.kr

‘특혜 논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수익 재평가 후 재협약 방침

전문가 등 5명 참여

내년 2월까지 손익분석

광주시, 기아자동차,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 수익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공청하고 객관적인 운영 재협약을 위해 기아차와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야구장 손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에는 광주시, 기아차 관계자와 각각 추천한 회계전문가, KBO 측 야구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 달까지 평가위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손익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분석을 순조롭게 마치면 내년 3~4월에는 본격적인 재협약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챔피언스필드 신축 당시 기아차가 25년간 야구장 운영권, 광고권, 명칭 사용권을 허가했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아차가 300억원을 부담하면서 건립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한 대가 성격이었다. 300억원

을 선납 받고 25년간 운영을 허가한 셈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야구장 건립에는 이 돈을 포함해 국비 298억원, 시비 395억7000만원 등 993억7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기존 무등경기장 광고권 일할가가 2011년 1억7000만원에서 2012년 13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점 등에 비춰 기아차가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여론이 일었다.

시는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2013년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한 뒤 재협약을 하도록 계약을 변경해 손익평가를 앞두고 있다.

건립 전인 2011년 광주시 용역에서는 25년간 506억원의 수익이, 기아차는 18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한국감정원 자문결과를 토대로 야구장 사용료(300억원)가 154억~456억원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협약 체결시 협상의 대전제는 ‘시민의 이익 극대화’에 두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득 가능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현철기자 cki@kwangju.co.kr

다시 242만달러 수출계약

전남도 시장 개척단

전남도 시장개척단은 지난 10일까지 5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통해 모두 242만9000달러의 수출계약(MOU)을 체결했다. 시장개척단에는 광양의 (주)금풍공업, (주)보양 등 9개 업체가 참가했다.

전남도는 시장개척단 파견 전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응대 상담요령, 시장환경, 경쟁 국가와 시장성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 상담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번 방문에서 (주)금풍공업 10만 달러, (주)담양한과명진식품 30만 달러, 농업회사법인인삼순푸드(주) 10만 달러, 농업회사법인(주)프롬웰 15만 달러, (주)대나무건강나라 15만 달러, 어업회사법인인산해우젓(주) 22만 달러, (주)케이푸드농업회사법인 15만9000달러, (주)보양 90만 달러, (주)새물 35만 달러 등 모든 기업이 수출 MOU를 체결했다. 장수철 전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일본의 관동·관서지방으로 수출 거점 확대를 꾀할 수 있었다”며 “샘플 제공 등 바이어 합의를 위한 이행을 통해 계약이 실행되도록 사후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철기자 chadol@kwangju.co.kr



한·일 시도지사들 문화공연 관람

13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공연 관람을 위해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성 박물관을 방문한 (왼쪽부터)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최구식 경상남도 정부부지사, 오가와 히로시 후쿠오카현 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 나카무라 호도 나가사키현 지사가 환영이나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伊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로 모색

에밀리아 로마나주 대표 나주 농업박람회 참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나주와 전남도와의 국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에밀리아 로마나 측이 사회적 경제 노하우를 전수해 전남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남도는 에밀리아 로마나와 농축산 분야 협력 강화, 사회적 경제 관련 인적·물적·정보 교류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3일 “에밀리아 로마나 지오반니 몬티(59) 대표 등 이탈리아 협동조합 관계자 10명이 오는 1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나주에서 열리는 ‘2015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한다”며 “식초·와인·치즈·농기구 등 자체 생산 제품을 전시하고 수출상담에도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16일 오후 영암현대호텔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전남도 재생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17일 나주 평화호텔과 화순 발효협동조합

등 2곳을 찾아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해 현장 컨설팅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전남과 에밀리아 로마나주와의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 불로나시를 찾은 이낙연 지사가 지오반니 몬티 대표 등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나주는 농축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주의 수도인 불로나에서는 이탈리아의 첫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회적 경제의 성지로 불린다.

전남도 관계자는 “에밀리아 로마나주는 이제 막 태동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전남의 사회적 경제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밝은광주안과 의원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